

전라북도, 한글로 하나되다

573돌 한글날 기념식 도청 공연장서 개최 방안사전 편찬 의의 토의 등 내실 있게 진행

전북도는 9일 훈민정음 반포 제573돌을 맞는 한글날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전라북도 한글 큰잔치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기념행사는 많은 도민이 참여하고 한글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됐다.

2019 한글로 하나되다 라는 주제로 열린 한글 큰잔치 기념행사는 전세대와 계층이 참여해 한글로 하나되는 한글문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았고, 실제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전북도는 작년과 다르게 올해에는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올해 8월 1만 1천여개의 사투리를 담은 전라북도 방안사전 편찬 의의와 활용 사례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하는 학술대회를 여는 등 단순 행사성 위주에서 국경일 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했다. 한글날 기념식은 난타로 식전공연을 시작해 주요 내빈들의 축하 및 기념사, 전라북도 국어발전에 이바지한 한글유공자 표창, 각종 대회 우수 성적자 시상, 한글 퍼포먼스와 전국학생백일장대회 주제발표, 한글날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당일 부대행사로 초등학교생들이 KBS골든벨 진행방식으로 하는 우리말 겨루기인 <초등학생 '도전! 우리말'>, 임미성 시인을 초청하여 관객과 소통하는 자리 <작가와와 만남>, 전북지역 방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김나영 국악인의 <판소리 한 마당>,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대회 <전국학생백일장 대회>, 한글가방, 한글팔찌, 한글편백이, 한지 공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 <한글문화체험 한마당>, 사투리 손글씨, 시화작품, 한글소품 등을 전시하는 <전시행사> 등이 운영

됐다. 도는 한글날 기념행사에 앞서 8일 오후 1시에는 전주교육대학교 마음연구회에서 한글날 기념 학술대회 <말모이>를 진행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전북대학교 이태영 교수의 특강과 전주대학교 서정섭 교수, 제주대학교 강영봉 교수의 학술발표가 이뤄졌고, 마지막으로 영화 '말모이'를 관람하며 우리말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송하진 도지사는 기념식에서 "한글은 한민족 역사에 있어 값진 보물로서 전 세계적으로 글자가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면서 "도에서도 우리말의 소중함을 알기에 전라북도 방안사전을 제작해 지역 고유의 언어를 보존하는 노력과 함께 한글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도청에서 기념식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글처럼 도민의 삶과 문화, 정신을 중요하게 하는 도정을 펼치겠다"며 "도민 여러분도 우리 말과 글을 더 사랑하고, 더 자랑스러워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발전 위해 흘린 땀방울에 영예

제24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수상자 선정 25일 전북도민의 날 행사서 상패와 메달 수여



이정권

김석준



조소자

김동호

전북도는 최근 '제24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수상자에게는 혁신대상에 이경 권씨를 비롯하여, 경제대상에 김석준씨, 문화대상에 조소자씨, 나눔대상에 김동호씨가 선정되었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전북인을 찾아 시상하는 상으로 24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북인대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및 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시상분야를 8개분야에서 4개분야로 통합했으며, 후보자 난립방지를 위해 추천권한을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기존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한 후 첫 번째로 실시했다.

그 결과 시·군 및 기관·단체의 후보자 추천과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혁신·경제·문화·나눔 분야에 총 28명의 후보자들이 접수했고, 이들은 대상으로 각 분야별 현지조사와 두 번의 심사(예비심사, 본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 4개분야에서 1명씩 총 4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오는 10월 25일 전북도민의 날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상패와 메달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용범 행정부지사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혁신·경제 등 각 분야에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땀방울을 흘려 성과를 내신 한 분에게만 드리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고 계신 훌륭한 도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민의 70%가 마시는 용담호, 우리 함께 관리해요"

전북도, 맑은 물 공급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 등 수질관리 평가 실시

전북도는 지난 9월부터 진안군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용담호 수질자율관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질자율관리 평가는 도와 진안군, 주민, 수자원공사 간의 '용담호 수질 개선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2005.2)에 의거 격년제로 실시하며, 올해가 7번째이다.

이번 평가는 2017년, 2018년 2년 동안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비점오염 저감정책, 용담호 호소 관리 및 지역주민 수질 자율관리 확산 운동 등 5개 분야 27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도는 지난해 녹조 발생으로 호소관리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올해 평가 지표 중 용담호 호소 부유 쓰레기 관리, 조류 발생 억제, 용담호 목표수질 달성도 3개 지표에 대해 평가 대상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수질자율관리 평가는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포함 1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9월 서면 평가하고, 최근(10.1)에 진안군을 방문, 자율관리 추진실적 점검 및 현장을 확인했다.

이번 평가에서 진안군은 그동안 하

수도 시설, 비점오염저감 시설 등 수질개선 사업비 445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이전 평가 시 200억원 보다 222% 증가했으며, 저농약, 우렁이 농업 등 친환경 농경지 재배면적은 4,156ha으로 이전 평가 시 3,316ha 보다 125.3% 증가하였고, 용담호로 유입되는 화학비료 사용량 역시 8% 감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공습지를 신규로 추진해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면적이 전 평가 대비 0.3%(5만7000㎡) 증가했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와 함께 안정적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처리시설을 2022년 완공 목표로 증설(100톤/일→220톤/일) 하고 있다.

용담호 수질개선주민협의회에서는 43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교육과 함께 친환경 세계(1703개), 쓰레기 봉투(8525장)를 공급하고, 하천정화 활동(32회), 도랑 살리기(장포식재 등), 오염원 저감 휴공부여(2800개) 등 주민주도형 실천운동을 전개해 왔다.

진안군의 수질개선 추진사항을 확인한 평가위원은 용담호 수물민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노력해, 용담호 수질을 1등급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자제로

매우 좋은 사례라고 말하고, 주민들의 수질관리 의지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 외 용담댐 상류 장수군이 대규모 양돈단지(10개농가, 1만6192)매임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용담댐 상류 축산계 오염원 저감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도는 평가위원들이 이번 주까지 제출한 평가점수 등 평가 의견을 바탕으로 용담댐 수질자율관리 결과를 이달 안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수질자율관리 평가 결과 등급이 '보통'일 경우 수질개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미흡'으로 나올 경우 현 수질자율관리 체계를 재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도 환경복지국장은 "도민의 70% 130만명이 마시는 식수원인 용담호 수질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율관리 평가를 통해 수질관리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용담호가 1등급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그동안 2017년까지 총 6번의 수질자율관리 평가에서는 모두 '정상' 이상의 등급을 받았으며, 용담호 수질은 수질자율관리 제도가 시행 이후 현재까지 상시 1등급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김진성 기자



지난 8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송하진도지사가 평소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공로가 큰 유공자에게 표창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 상료... 모범노인·노인복지 공로자 42명 표창장 수여

전북도는 지난 8일 도청 공연장에서 제23회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노인의 날(10. 2)'은 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7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며, UN에서도 1991년부터 매년 '세계 노인의 날(10. 1)'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사회의 경로효친 의식을 드높이고 노인의 권리 신장

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의회, 대한노인회 등 노인관련단체 관계자, 노인복지유공 수상자를 포함하여 도내 어르신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 노인의 날 기념식에는 평소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공로가 큰 유공자 42명에 대하여 도지사, 도의회의장, 노인회 연합회장 표창을 수여하고, 식전축하행사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배

운 아코디언, 색소폰 연주와 라인댄스 공연 등으로 기념식을 더욱 빛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에서 "초고령 사회 기초연금 지급 확대와 전국 3위 규모의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결 및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지원과 돌봄서비스, 방문 건강관리 등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국회의원 이용호
남원시청	시장 이환주
남원시의회	의장 윤지홍
농협 남원시지부	지부장 박노현
남원축협	조합장 강병무
남원농협	조합장 박기열
남원우체국	국장 유기권
남원경찰서	서장 함현배
남원병원	원장 박종관 신재훈
	김학경
남원이엔씨	대표 권찬열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